

■ 법률 칼럼

부모 시민권 취득 시 18세 미만 자녀의 자동 시민권 취득

2001년 변경된 시민권법에 따르면 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할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시민권법은 2001년 2월 27일 기점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법적 양육권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권법은 18세라는 나이뿐만이 아니고 그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자 되기 위한 상세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18세 미만의 자녀는 영주권 자녀야 합니다.

둘째, 18세 미만의 영주권자 자녀가 현재 시민권자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여건 3가지 요건 즉 1) 18세 미만 2) 영주권자 신분 3) 시민권 부모와의 동거 중 한 가지만 충족이 되지 않아도 그 자녀는 독자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7살의 영주권자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그 17세 자녀는 시민권 취득 가능 연령인 18세가 되었을 때 독자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여 시민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시민권 부모와의 동거 조항이 충족되지 않아 시민권 자동 부여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의 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 남은 이슈는 이 자녀가 시민권자라는 것을 서류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한인 청소년들이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에 진학함에 따

라서 시민권자임을 서류로 증명해야 할 필요가 증가했고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임을 서류로 증명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여권을 미국 국무성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민권자 부모의 시민권 증서, 자녀와 그 부모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의 영주권 등을 국무성에 제출하면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권 증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 여권이면 충분하지만, 이민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관학교 등에 지원하는 경우에 시민권 증서의 일련번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명방법으로 시민권 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N-600이라는 시민권 증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함을 명심하십시오. 최근에 제가 상담한 사례를 보면 어릴 때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여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는데도 N-400라는 시민권 증서 신청이 아닌 시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권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전문의 칼럼

역류성 식도질환의 관리와 치료

역류성 식도질환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 살펴본 지난 칼럼에 이어서 이번에는 치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던 과거에는 역류성 식도질환이 흔하지 않았습다. 그러나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한 육식 위주의 기름진 음식과 더불어 과체중, 비만으로 인한 복부 압력의 증가로 식도 역류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역류성 식도질환은 만성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으로 생활습관 교정이 아주 중요한 치료 중 하나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금연을 하여야 하고, 위 식도 역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카페인, 초콜릿, 매운 음식, 고지방 음식, 탄산음료)을 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잠을 잘 때는 상체 부위를 약간 높게 하고 딱 끼는 옷을 피하여야 합니다. 침대 머리쪽 다리받침에 작은 블록을 끼워 놓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쐐기(wedge)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면 쉽게 상체 부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후 눕는 자세를 피하고, 수면 2-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감량도 복압을 낮추어 주어 증상을 완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생활 치료 중의 하나입니다.

생활 습관 변화로 증상이 충분히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역류되는 위산의 농도를 낮추는 약물 중에 펩시드(Pepcid) 등의 H2수용체 길항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할 경우에는 오메프라졸, 벅시움, 텍실란트, 판토프라졸 등의 양성자펌프억제제(PPI)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PPI의 경우는 오랜 공복 후 복용할수록 효과가 좋기 때문에 주로 하루 첫 음식을 먹기 30-60분 전

에 복용하는 걸 권유합니다.

또한 PPI는 증상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는 것보다는 한 번 복용하면 2-4주간 매일 복용하는 것이 증상 조절이나 손상된 식도의 회복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PPI는 장기간 복용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꼭 필요한 경우와 기간에만 복용을 해야 합니다.

PPI는 위산의 분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12, 철분 등의 미네랄 성분의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 흡수 감소와 골분해 작용의 활성화로 인하여 골밀도의 감소 및 그로 인한 골절 위험도의 증가도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치매의 위험 증가에 대해서도 연구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일관된 결과가 있지는 않지만 유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듯 PPI는 역류성 식도질환에 아주 효과적인 약물이지만 장기복용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필요한 기간만 복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약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주치와의 상의를 통해 부작용이 적은 H2수용체 길항제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역류성식도질환의 관리와 치료에 중요한 것은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앞서 서술한 생활습관의 변화는 항상 동반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김성현 내과 보드전문의
(714) 562-9139
6131 Orangethorpe Ave, #150A
Buena Park, CA 90620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506	\$278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3년 현재 164.9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예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822	\$2,465
Asset Limit	\$16,660	\$33,24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예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6400643@gmail.com
LEE JIHOON (이지훈)
Lic # 4276029
T.714.872.9377